



부동산 및 건설 업계 주름잡는 특수 대학원이 뜬다

실무 위주의 전문 커리큘럼 통해 우수 인력 양성

최근 부동산 및 건설 관련 특수 대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고 경영자(CEO) 과정이 마련돼 있는 곳은 주경야독이 가능하고 부동산 및 건설업과 관련된 업계 경영자 및 임원, 공무원까지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건설 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특수대학원을 살펴보았다. 에디터 김혜영 자료 제공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는 '주경야독형' 인재가 많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론을 수강하며 전문 지식을 쌓고,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인맥을 넓힐 수 있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특수 대학원을 찾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수십여 곳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 산업 등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자, 기존의 행정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 등에 있던 관련 전공에 부동산학을 접목시키는 경우도 많아졌다.

전문 커리큘럼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갖춘 부동산 허브

건국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동산학 교육을 시작한 곳으로 유명하다.



1972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부동산학과를 설립했고, 1985년 학부에 부동산학과를 개설했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부동산대학원을 설립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갖춘 곳으로는 건국대학교와 한성대학교가 있으며, 건국대학교는 부동산학의 메카로 명성이 자자하다. 1970년대부터 쌓아온 부동산 전문 커리큘럼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만의 강점이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은 크게 부동산 경영·관리, 부동산 건설·개발, 부동산 금융 투자, 국제 부동산의 4개 전공으로 나뉘며, 2년 6개월 과정으로 매 학기 85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부동산 분야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은 9명의 부동산학과 전임 교수가 이끌고 있다. 지원 자격은 대기업·중소기업 경영

자 및 임직원, 중견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부동산 관련 회사의 임원 등이며,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신 행정수도 및 신도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투자 및 부동산 경제, 부동산 법제, 부동산 정책, 해외 부동산 등 오로지 부동산만을 주제로 삼아 특강을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학기 초 수강생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철저히 학생의 수요에 따른 실무 위주의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16주 과정 동안 30개의 특강과 국내외 현장 실습, 세미나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의 재학생 및 수강생들은 국회의원, 차관, 부장 판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및 세무사, 대기업 그룹 및 계열사 사장 및 임원, 증권·투신·은행·보험 회사 임원,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 대표 등 각계를 망라하며, 국내 부동산 업계를 이끌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분야 특화로 차별화 선언

한성대 부동산대학원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 대학원이다. 한성대학교는 학부 과정에 이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2001년 건국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의 부동산 특수 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부에서부터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은 부동산 투자 금융, 부동산 평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지적 및 토지 관리, 풍수지리의 총 5개 전공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학기 50명을 모집한다.

한성대의 강점은 부동산 금융 분야다. 다른 부동산대학원과 달리 경영·경제 전공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부동산 금융 특화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



고 있다. 인접 학문인 부동산학, 경제학, 경영학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FIRE (Finance and Investment in Real Estate)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대한주택보증과 산학 과정을 개설해 대한주택보증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과 금융 분야의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과 학문의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금융 분야를 특화시켜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대는 박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학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외국의 부동산 관련 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단국대학교는 1980년대 초반부터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등에 부동산 경영 및 개발, 도시 계획, 건축, 토목, 환경 관련 학과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좀더 전문화되고 학제적인 연구 및 교육을 위해 각 대학원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및 건설 분야 학과를 통합 및 재조정해 지난해 부동산·건설대학원을 설립했다. 도시 및 부동산 개발, 부동산 경영, 건축 시스템 경영, 토목 시스템 공학, 환경 조경의 5개 전공으로 세분화돼 있다.

동 대학원에 마련돼 있는 부동산·건설 최고 경영자 과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동산 경기 예측과 전망 기법,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 소개, 국제 부동산 경기 동향 등에 대한 이해와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 금융 등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자, 일정 직급 이상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 정부 투자 기관 임원급 이상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6개월 15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약 400만 원대 수준이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은 198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 특수 대학원이다. 건설 경영 관리, 건설 공사 관리, 도시 공학, 건설 공학, 건축 공학, 구조 공학 등의 전

공으로 구성돼 있다. 석사 및 연구 과정, 도시 관리 전문 교육 과정, 건설 최고 경영자 과정의 3개 과정에서 배출한 졸업생 동문회가 있으며, 건설 산업에서 실질적인 산·관·학·연 협동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1991년부터 운영돼 온 건설 최고 경영자 과정은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건설 관련 고위 공무원, 국영 기업체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건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건설 경영 정보를 제공해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설 경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관련 국내외 학계 및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 경영자로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창출하도록 하는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매 학기 50명 수준이며, 수강료는 350만 원이다.

이외에도 강남대 부동산 행정대학원, 국민대 법무대학원, 경희대 행정대학원에 부동산학 석사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광운대 경영대학원, 고려대 공학대학원, 경원대 경영대학원, 동국대 행정대학원, 이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등에 부동산(건설) 최고위 과정 및 최고 경영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부동산 산업이 성숙되고 금융 및 서비스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가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특수 대학원 진학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